

KMK GROUP 전 임직원과 사원가족, 협력업체와 함께 새해에도 건강하고 함께 동반성장 할 수있는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2019년 구정을 맞이하여 힘찬 다짐을 보였다.



MONTHLY **KOFA**

코파의

칭찬

Tel. 021-55797281, E-mail : indokofa@gmail.com Add : Ruko Pinangsia Blok B-28, Karawaci Office Park

Vol. **53** 2019/02



KOFA 제인니한국신발협의회
KOREA FOOTWEAR ASSOCIATION

KMK GROUP 2019년 새해맞이 사원 단합대회 열어



지난 5일 구정을 맞이하여 인도네시아 KMK GROUP(회장:송창근)은 2019년 새해맞이 사원 단합대회를 땅그랑 소재 끄따툰에서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KMK GROUP 전 임직원과 사원가족, 협력업체대표와 함께 새해에도 건강하고 함께 동반성장 할 수 있는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행사를 치렀다. 한편 이날 KMK GROUP 송창근 회장은 개인적으로 생일을 맞이하게 되어 행사장이 더욱 더 따뜻하고 의미있는 행사로 이어졌다.

KMK GROUP은 인도네시아 신발업계중 가장 활동적인 혁신경영을 해 오고있어 타 기업의 귀감이 되고있고 나이키, 캔버스, 헌터등 유명 브랜드를 생산하고있다. 최근 중부자와의 진출로 더욱 더 생산량을 확대하게 되었으며 그룹 전 공장과 전사원들의 창의적인 근무환경으로 새로운 개념의 경영을 주도하고 있다. 송창근 회장은 협력업체가 있어 우리가 성장 할수 있게 되었다고 참석한 협력업체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KMK GROUP은 동종 타 업체에 비해 사원들의 평균연령이 대체로 낮아 우리 신발산업의 세대교체를 주도하고 있음을 한눈에 알수있고 한국 신발산업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주역들을 탄탄하고 창의적인 환경속에서 성장시켜 나가고있다. 2019년 KMK GROUP의 새해는 이렇게 시작되었고 올해도 큰 활동과 각 공장별 괄목할 만 한 성장을 기대해 본다

투자조정청, 인허가 OSS 시스템 통해 하루 평균 1,200건 사업자번호(NIB) 발행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BKPM)은 이번 달 2~11일 기간 동안 인허가 신청 및 발급 절차를 온라인으로 일원화하는 OSS(Online Single Submission) 시스템을 통해 발행한 사업자고유번호(NIB)는 하루 평균 1,239건이라고 밝혔다. NIB란 사업자 법인등록번호로 기존의 사업자등록증(TDP), 수입허가서(API), 관세청등록번호(NIK)가 통합됐다. 신규/기존 법인 모두 NIB를 보유해야 한다. OSS 시스템은 지난해 7월 경제조정부가 운용을 개시, 지난 2일 운영 권한이 투자조정청으로 이전됐다. 발행 내역은 국내 투자가 8,895건, 중소기업이 541건.



▲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 토마스 렘봉 청장
외국인 투자가 486건 등이었다. 현지 언론 안따라뉴스 15일자 보도에 따르면 투자조정청의 토마스 렘봉 청장은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시스템 개선과 더불어 기업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말했다. 투자조정청은 현재 OSS 전용 사무실을 설치했다. 향후 콜센터 등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지원센터도 개설할 예정이다.

유습 깔라 부통령, 루피아 약세로 항공 운임 인상 불가피

지난 14일 현지 언론 펠보 등에 따르면, 유습 깔라 부통령은 항공 운임 인상을 용인하는 생각을 드러냈다. 유습 깔라 인도네시아 부통령은 “항공 운임 상승은 미국 달러에 대한 루피아 약세가 진행한 데 따른 것으로, 운임이 인상되지 않으면 많은 항공사가 파산할 것” 이라는 견해를 나타냈다.

그는 “항공사는 비행기와 항공 연료를 달러로 구입하고 있지만 항공 티켓은 루피아로 판매하고 있다” 며, “루피아 약세가 진행되면서 경영을 압박한다.”



그는 “항공사는 비행기와 항공 연료를 달러로 구입하고 있지만 항공 티켓은 루피아로 판매하고 있다” 며, “루피아 약세가 진행되면서 경영을 압박한다.”

인도네시아 재무부, 법인세 인하 검토...투자 유치 확대 도모



스리 몰야니 인도네시아 재무부 장관은 지난 8일 법인세

인하를 검토하고 있음을 밝혔다.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투자 유치 확대를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9일자 국영 안따라 통신 등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인도네시아 표준 법인 세율은 25%. 스리 장관에 따르

면, 인도네시아의 법인 세율은 주변국과 비교하여 필리핀(30%) 보다는 낮지만, 싱가포르(17%), 태국(20%), 베트남(22%), 말레이시아(24%) 보다 높은 수준이다. 또한 법인세 인하의 실현에는 소득세법 '2008년 제36호' 개정이 필요하다.

한편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난해 11월 '16차 경제정책 패키지' 를 발표, 투자자들에게 조세감면혜택과 법인세 감세 등의 내용을 담았다. 최근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선진국들의 투자를 놓치지 않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탁월한 선택, 후회없는 결정 Kendal / Park By The Bay

구분	토지면적	인구	1년 졸업생	GDP성장률	주요인프라
스마랑지역	39,800km ²	3백33만명	150,000명	6%	탄중항구, 스마랑 국제공항

Vietnam-Singapore Industrial Park (베트남-싱가포르 산업단지)

구분	VSIP응에안	VSIP광나이	VSIP빈중
토지가격	US \$38	US \$38	US \$70
공단특색	삼성, LG 1시간거리내	항공도시 (북부최대항)	인력풍부 (3백3십만명)
추천업종	섬유, 신발 (노동집약)	섬유, 신발 중공업	외국계최다 투자지역
최저임금	3급지	1급지	전지/전자 식음료, 제약
개발규모	150ha	1,600ha	1급지

산업단지 문의 : 박병현 팀장 (문의메일 : Park.byunghyun@sembcorp.com)
한국 : (82)010-9081-0424 / 베트남 : (84)012-7828-7293

파크랜드 · 태광, 印尼 신발공장 추가 건설... 나이키도 현지 물량 확대



한국 패션기업인 파크랜드와 신발전문 제조업체 태광실업이 인도네시아에 1억7,500만 달러(약 2천억원)규모의 신발공장을 추가로 건설한다. 스포츠용품 전문업체 나이키는 인도네시아 현지 공장에 생산물량을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현지 언론 끈판(Kotan)은 “미중간 무역 전

쟁의 영향으로 인도네시아에 투자로 이어지고 있다”며 “미국의 높은 수입관세를 피하기 위해 제조업은 아세안, 특히 인도네시아로 이동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끈판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산업부는 파크랜드로부터 인도네시아 중부자바 빠띠(Pati)에 7,500만 달러(약 840억원)를 투자해 신발공장을 설립

하기로 했다. 태광산업은 서부 자바의 수방(Subang)과 반둥(Bandung)에 1억 달러 규모의 신발 산업을 건설할 예정이다.

파크랜드는 현재 인도네시아 반뜰 주 세랑 1,2 공장과 스마랑에도 생산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태광은 인도네시아 생산법인의 증설 등 생산 물량 확대를 위한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미중 무역전쟁에 따른 여파로 나이키는 인도네시아에 생산물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아이르랑가 하르타르토(Airlangga Hartarto) 산업부장관은 최근 “미중 무역전쟁 영향으로 세계 신발 회사인 나이키가 인도네시아에 더 많은 신발을 주문하게 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구체적인 증가 물량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자카르타 업종별 최저 임금 결정... 자동차는 10% 인상



인도네시아의 수도 자카르타 특별주에서 올해의 부문별 최저임금이 결정됐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약 8.03%. 중앙 정부가 정한 주 최저임금(UMP) 인상률과 같았지만 자동차 · 이륜차 분야는 10% 상승으로 이 수준을 웃돌았다. 이로써 일부 업종에서는 500만 루피아를 넘어섰다.

부문별 최저임금은 자카르타 특별주정부가 지난달 23일자로 공포한 주지사령 ‘2019년 제6호’에 의해 규정됐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11개 분야의 80개 업종에 적용되며 근속 1년 미만의 직원에

게 해당된다. 최저임금이 가장 높은 분야는 금속 · 전기 · 기계 분야 18개 업종 중 전기 오토바이, 발전기, 변압기, 전력측정기를 포함한 전력관리 장비 분야로 월 500만 443루피아였다.

자동차 부문은 9개 업종 중 이륜차 산업, 사륜차 산업, 중장비 산업의 3개 업종이 월 494만 2,113루피아, 나머지 6개 업종이 491만 7,511루피아로 모두 전년 대비 10% 상승했다.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일당으로 설정)은 일부 직종에서 상승률이 14%대를 기록했다.

2월 자카르타 폭우와 홍수 경보

인도네시아 기상기후지질청(BMKG)은 2월 상순에 집중호우가 내리고 이로 인한 홍수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보를 발령했다.

2013년에는 자카르타 역사상 최악의 홍수가 발생했다. 자카르타 랜드마크인 호텔인 인도네시아 앞 로터리와 대통령궁이 침수됐고 자카르타 전체 교통이 마비됐으며, 20명이 사망하고 수천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자카르타는 1996년과 2002년, 2007년, 2013년에 큰 물난리를 겪었다. 이에 관련, 자



▲ 땅그랑 하늘에 먹구름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하며 비를 내리기 시작했다. 2019. 1. 17 [사진: 데일리인도네시아]

카르타에는 5~6년 주기로 대홍수가 발생한다는 속설이 있다.

2018년에는 큰 홍수가 기록되지 않아서인지, 자카르타

시민들은 올해 대홍수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하지만 기상 당국은 홍수 주기는 없다고 일축했다. 아구스 와유 라하르조 BMKG 항

공기상 담당 국장은 2월 초에 올해 우기가 절정에 달하면서 집중호우와 이로 인한 홍수가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BMKG 공식 웹사이트 www.bmkg.go.id에 올라온 예보에 따르면, 자카르타에서 거의 모든 지역에서 완만한 수준의 침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관내 일부 지역은 홍수를 경험할 수 있다.

반동공과대학교 기상학자 아르미 수산디는 북부자카르타 지역의 경우 집중호우로 강우

량이 증가하는 동시에 만조로 해수면이 상승하고 상류 지역에서 흘러내린 강물이 한꺼번에 만나면 홍수가 날 수 있다고 말했다.

집중호우로 인한 홍수는 중부 자카르타와 남부 자카르타에서도 가능하다. 예를 들면 일주일 동안 매일 6시간씩 시간당 10밀리미터의 비가 내리면 자카르타가 침수될 수 있다.

[데일리인도네시아]



기술과 열정으로 다가간다!



사 출
일반사출(TPU,ABS,PC,PVC)
프레스(알루미늄, 신주, 철..)
TPR,PU,PVC

코 팅
진공증착(멀티/알루미늄)
UV AUTO 코팅

금 형
일반 금형
프레스 금형

스크린

인 쇄

패 드













PT. KEINTECH

Jl. Wisata Jangari KM 17 RT/RW 001/008 Desa Bobojong, Kecamatan Mande, Kab. Cianjur 43292 – Jawa Barat
Telp. : 0263-2294286, 0263-2294321, 0263-2294315 Fax : 0263-2294451

돌아온 아후 前자카르타 주지사...印尼 정치판 술렁



신성모독 혐의로 2년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던 바수키 짜하야 뿌르나마(일명 아후) 전 자카르타특별주지사가 석방 후 화제의 중심에 섰다.

오는 4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인도네시아에서 대선 후보인 조코 위도도 대통령, 프라보워 수비안포 대인도네시아운동당(그린드라당) 총재 못지않은 관심이라는 분석이다.

인도네시아 현지 자카르타포스트는 아후의 출소일에 맞춰 '띠옹화(Tionghwa·인도네시아 화교)의 강력한 리더십이 우리에게 좀 더 필요하다'는 제목의 사설을 실었다. 띠옹화는 아후를 일컫는 말이다.

아후는 조코위 대통령이 자카르타 주지사를 지냈을 당시 부주지사로 그의 오른팔로 불린 인물이다. 대통령에 당선된 조코위의 뒤를 이어 아후는 인구의 85%가 무슬림인 인도네시아에서 최초의 기독교인으로 자카르타 주지사에 올라 화제가 됐다.

강력한 리더십으로 폭넓은 지지층을 확보하며 탄탄대로를 걸던 아후의 정치 행보가 중단된 것은 2017년 자카르

타 주지사 선거 당시 이슬람 경전인 '코란'을 모독했기 때문이다. 그는 "유대인과 기독교도를 지도자로 삼지 말라"라는 코란의 구절을 정치적으로 악용하지 말라"는 유세 중 연설이 무슬림의 반발을 샀고 결국 신성모독으로 징역형을 살게 됐다.

하지만 그는 유죄 판결에도 지지자들을 향해 승리의 'V'를 그리며 당당한 모습을 보였으며, 자카르타 시민들은 도심의 모나스 광장에 모여 그의 석방을 요구해 화제가 됐다. 지난해 타임지가 선정한 '100대 사상가'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최근 석방을 앞두고는 지지자들에게 "별도의 환영 행사를 열거나 교도소 앞에 캠프를 차리지 말아 달라"고 부탁하면서 "교도소의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고 전하기도 했다.

그의 석방이 주목받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최근 열린 인도네시아 대선 TV 공개 토론에서 주된 이슈였던 부패와 관료의 권력 남용에 있어서 아후 만큼 강력한 결단력을 보여줄 인물이 없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특

히 인도네시아 내 화교 및 비(非) 무슬림계는 물론 다수 무슬림계 주민들이 그에게 거는 기대감도 높다.

아후의 복귀로 가장 딜레마에 빠진 인물은 조코위 대통령의 러닝 메이트인 마루 아민 부통령 후보다. 아후가 신성 모독죄로 유죄판결을 받을 당시 파프와(Fatwa·이슬람 법에 따른 결정이나 명령. 법적인 판결이 아닌 종교적인 견해지만 무슬림 사이에서는 큰 권위를 가짐)를 승인하며 수천 명의 무슬림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시위를 하게 만든 장본인이 바로 마루이다. 이 때문에 마루 후보는 아후 출소 당일 "아후는 법이 결정한 죄값을 합법적으로 치르고 나왔으며 이는 바람직한 것"이라며 그에 대한 지지를 보였다.

이 같은 영향력 때문에 아후가 2년 전 주지사 출마 당시 몸담았던 투쟁민주당(PDI-P) 측은 그의 정계 복귀에 기대를 걸고 있다. 당 측은 오는 11월을 전후해 그가 정계에 복귀할 것이며 이 경우 PDI-P 소속이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다만 아직 아후의 행보는 정치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 그는 이미 도심에 석유산업을 위한 사무실을 연 상태며 최근에는 TV 방송국의 쇼프로그램 호스트 자리를 수락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는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그의 모습이 소개됐는가 하면 그의 아들은 자신의 SNS에 아버지와 찍은 사진을 올리며 "그가 돌아왔다. 아버지는 자유"라는 내용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인사] 한국무역협회 자카르타지부에 김영준 지부장 부임

한국무역협회 자카르타지부는 2월 2일자로 김영준 자카르타 지부장이 부임했다고 밝혔다.

김영준 지부장은 "신남방 정책의 핵심 국가인 인도네시아에서 한류를 기반으로 한국의 우수 중소기업들이 활발히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인니에 진출하신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해소하는 활동, 새롭게 인니 진출에 관심 있는 기업에 대한 정보제공 그리고 양국 기업간 네트워킹 기회 확대 등에 노력하겠습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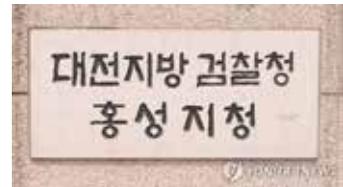
한편, 김 지부장은 서울 출신으로 1990년 협회에 입사, 국



▲ 김영준 신임 한국무역협회 자카르타지부장

제사업본부 미주실, 유라시아실, 국제협력실 등을 거친 국제업무/관계 전문가로서 전북 지역본부장을 거쳐 금번 자카르타지부장에 부임했다.

인도네시아 목재회사 사칭해 투자금 28억 행긴 5명 구속기소



▲ 대전지검 홍성지청(연합뉴스 자료 사진)

대전지검 홍성지청은 인도네시아 목재회사를 사칭해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로 A(58)씨 등 5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대포통장을 넘기는 등 범행에 가담한 B(40)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모집 총책 C(48)씨를 지명수배했다.

A씨 등은 인도네시아에서 수익성 높은 목재를 수출하고 부동산 개발도 하는 회사를 운영하는 것처럼 속여 주식 투자 명목으로 2016년 8

월 말부터 지난해 7월 말까지 264명으로부터 28억원을 받아 행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투자자들을 속이기 위해 가상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주식거래사이트를 만들고, 투자금에 상응하는 주식도 전산상으로 발행해 투자자들을 안심시켰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차명계좌를 통해 거래하고 필리핀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문자와 전화를 주고받는 등 방법으로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처음엔 피해자 1명에 대한 1억원 사기 사건으로 송치됐지만 계좌 추적과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분석, 교도소 녹취파일 확인 등을 통해 다단계 형태라는 점을 확인, 불법 유사수신 조직의 전모를 밝혔다"고 말했다.

PT. BOSUNG INDONESIA

한인기업과 30년을 함께 해 왔습니다!

인도네시아 한인기업의 차세대 리더기업으로 한인기업과 함께 성장 할 30년을 준비하겠습니다.

www.bosung.co.id



종이 골판지 생산 / 카톤박스 / 포장용 박스 / 종이 쇼핑백
CORRUGATED SHEET / CORRUGATED CARTON BOX SHOPPING BAG / INNER BOX

Jl. Raya Rajeg Desa Sindangsari Kec. Pasar Kemis Tangerang – Indonesia
E-Mail : shopping@bosung.co.id | sales@bosung.co.id Tel : (021) 5935 1001 (hunting)
Fax : (021) 5935-0022 (Shopping bag), (021) 5935 0066 (inner box), (021) 5935 0033 (carton box)

개성공단 올봄 재가동 준비

- 3월 개성 공단기업 북·미 정상회담 개최 후 급물살 기대
- 유엔 제재 의식, 한두달 쌀 등 현물결제 후 점차 달리 결제 구상
- 2월 2차 북·미 정상회담 분수령 기업들 발 빠른 행보
- 개성공단 기업 시설 점검 위해 25일 방북 8차 신청계획 준비

개성공단이 폐쇄된 지 3년여 만인 올봄에 재개될 가능성이 점차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아직 예단은 빠르지만 2차 북미정상회담이 3월 중에 개최될 것이 확실시되면서 이를 계기로 적어도 남북이 적극 원하고 있는 개성공단만은 미국 측이 전부는 아니라도 부분적이라도 양보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개성공단 기업들이 벌써부터 가동을 위한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개성공단 기업들은 시설점검을 위해 지난 16일 7번째 방북신청을 했으나 통일부가 미

국 측의 규제 완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감안해 또다시 불허해 방북이 성사되지 못했다. 그럼에도 개성공단 기업들은 설 이전에 반드시 개성공단을 방문해 시설점검에 나설 계획 아래 오는 25일을 전후해 8차 방북 신청서를 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성공단 기업들은 7차 방북 신청이 불허된 지난 15일 마포 모처에서 통일부 당국자와 한전, 수자원 공사, 관련 은행 등 개성공단 관련 공공기관 관계와 개성공단 기업인 대표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성공단 재개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점검하면서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에 크게 고무됐다.

개성공단 기업인들은 2차 북미정상회담이 성사된 것 자체가 개성공단 재개의 우선순위가 될 것으로 보고 빠르면 오는 3~4월 사이에 개성공단 재가동이 실현될 가능성을 내다보고 각 사별로 은밀히 재가동 준비를 본격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성공단기업 관계자의 전언

개성에 체류하고 있으며 이들 우리 측 관계자들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전력과 수자원 설비는 물론 개성공단 기업 건물과 설비 등이 양호하게 보전되었고 원부자재와 완제품 등도 빼돌리지 않고 그대로 보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이미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사업의 조건 없는 재개와 우리 정부의 적극 추진 의지가 맞물려 미국 측의 양해만 이루어지면 즉시 재가동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유엔의 현금제공금지 규정을 피하면서 정상가동하기 위해 처음 한두 달을 쌀 또는 의약품 등 현물제공을 하고 그 후부터 정상적인 달러결제수준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다.

국제섬유신문

HANSHIN

AIR COMPRESSORS

(주)한신기계공업 인도네시아 총판대리점

인도네시아 한인기업과 함께 한 18년!!!

중부자와 서비스지점 오픈 !!!

NH 시리즈(피스톤 콤프레셔)
국내 최대 판매, 유일 수출
피스톤 콤프레셔 (1~20마력)

RCH 시리즈 (소형스크류 콤프레셔)
설치면적 최소화, 경량화, 정숙화 실현
(5~20 마력)

AD-HT 시리즈 (일체형 드라이어)
에프터 쿨러, 에어필터, 에어 드라이어 일체형으로 설치면적 최소화.
입구온도 80°C 설계로 더운 동남아 지역에 최적화.

GRH 시리즈 (오일 인젝션 콤프레셔)
스크류 : 독일(GHH-RANDSA)
세퍼레이터 : 일본

AL,CDH 시리즈 (오일프리 콤프레셔)
완벽한 오일 차단, 최장의 운전시간 보장, 최고의 오일프리 스크류 사용
AL 시리즈 : Kobelco(일본) CDH 시리즈 : GHH-RAND(독일)

매월 정기점검 서비스
국내 구입가 보다 저렴한 가격
세계적으로 성능이 인정된
독일 GHH RAND 스크류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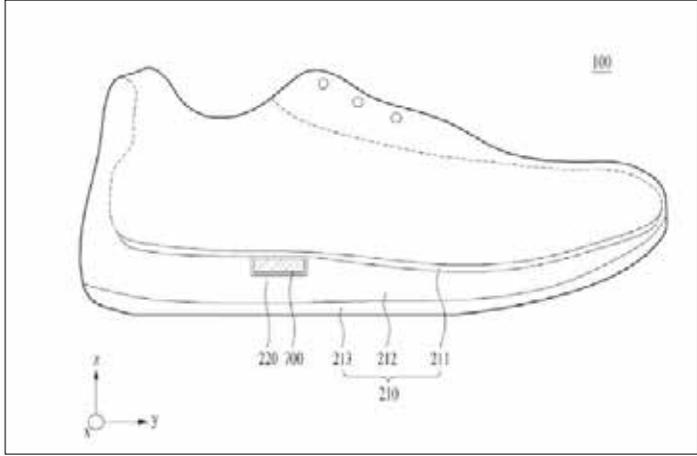
대표 / 유성열 : 0812 8037 0303 현지인 매니저 / MARIONO : 0812 961 8455

TANGERANG
Ruko Tataka Puri Block C1No.25 Jl. Curug Raya Pos
Bitung Tangerang 15810
Email : hanshin2009@hotmail.com
Telp : 021 5949 4000 / 5949 4222 Fax : 021 5949 4666

담당 / 정연오 이사 : 0815 1938 0006

JEPARA
Ruko, Jl. Gotri Jeparu, Ds. Kalipucang Wetan RT. 001 RW. 002
No. 3 & 4 Kec. Welahan Jeparu - Jawa Tengah
Email : hanshin2009@hotmail.com
Telp : 021 5949 4000 / 5949 4222 Fax : 021 5949 4666

LG 상표 붙은 신발 나올까... LG전자 '스마트 슈즈' 특허 승인



▲ LG전자가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로부터 승인을 받은 '스마트 슈즈(Smart Shoes)' 특허 이미지 [사진=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제공]

LG전자(066570)가 다양한 센서를 신발에 부착해 사용자의 걸음걸이와 활동 등을 분석할 수 있는 '스마트 슈즈(Smart Shoes)' 관련 특허를 취득했다. 최근 글로벌 스마트 웨어러블 기기 시장이 급성장하는 가운데 LG전자의 관련 사업

확대 가능성을 두고 관심이 쏠린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는 최근 LG전자가 신청한 스마트 슈즈 관련 특허를 지난 20일 승인했다. 이번 특허 승인으로 LG전자는 가속 센서와 자이로 센서,

압력 센서, 동작 센서 등 다양한 센서를 신발에 장착해 사용자의 움직임부터 활동 속도와 시간, 거리, 경로 등까지 분석할 수 있는 자사 기술을 특허로 인정받게 됐다.

이 기술을 이용하면 사용자는 스마트 슈즈를 착용해 단순히 걷는 것만으로도 발걸음과 심박수, 이동거리 등 정보를 스마트폰과 스마트워치를 통해 제공받을 수 있다.

더 나아가 발의 상태와 걸음걸이 패턴 등의 건강 분석 정보 확인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평소 걸음걸이에서 자신도 모르게 일부 발가락에 체중이 쏠리는 사람이 스마트 슈즈를 착용하게 되면, 스마트 슈즈는 이같은 정보를 사용자에게 통보해 걸음걸이 습관을 교정하도록 도울 수 있다.

업계에서는 LG전자가 향후 나이키와 아디다스 등 글로벌 신발 제조사와 협력해 스마트

슈즈를 출시할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

이미 LG전자는 2014년 '라이프밴드 터치(Lifeband Touch)'와 '심박 이어폰(Heart Rate Earphones)' 등을 출시하며 웨어러블 헬스케어 기기 시장에 진출한 바 있다.

글로벌 웨어러블 헬스케어 기기 출하량이 올해 1억2530만개에서 오는 2022년 1억8099만개로 향후 5년간 연평균 11% 이상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LG전자도 관련 사업을 확대할 분위기다.

특히 스마트신발 시장 규모

는 2016년 1조1300억원에서 2020년 5조7250억원 규모로 약 5배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삼성전자(005930)도 신발 깔창에 각종 센서를 달아 활동량과 걸음걸이 등을 측정, 스마트폰으로 데이터를 보내 주는 '스마트 인솔(Smart Insole)'을 개발해 사업화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LG전자 관계자는 "기술 선점 차원에서 관련 특허를 취득한 것"이라며 "당장 상품화 검토에 나설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자카르타 6개 신고속도로 제 1기 공사 연내 착수... 2021년 완공 목표



인도네시아의 수도 자카르타에서 계획되고 있는 새로운 고속도로 6개 구간(총연장 69.77킬로미터) 사업 주체사인 자카르타 톨로드 디벨롭먼트(PT Jakarta Tollroad Development, JTD)는 연내 동서를 연결하는 제1기 공사(2

구간, 29.67킬로미터)를 착수한다고 밝혔다. 2021년 완공을 목표로 한다.

현지 언론 비즈니스 인도네시아 29일자 보도에 따르면 제1기 공사 구간인 동부 자카르타 뿔로 그방-북부 자카르타 플라빠가당(A구간), 서부 자카르타 스마난-그로골(B구간), 그로골-플라빠가당(C구간) 등 3부분으로 나누어 건설한다.

JTD 프란스 사장은 "A 구간의 공사 진행 비율은 30%에 달했다. 10월 개통이 목표

이다. B 구간 및 C 구간은 각각 다음달과 올 하반기(7~12월)에 착공하겠다"라고 말했다.

프란스 사장은 이어 "B 구간의 건설 사업자 선정 입찰은 이미 끝났다. 낙찰 기업은 추후 발표하겠다. B 구간 건설 지역의 토지 취득은 원활하게 진행될 전망이다"라고 덧붙였다.

총 6개 구간의 건설 공사는 3기로 나누어 진행되며 2024년 안에 모두 완공될 예정이다.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는 신발 브랜드 '컨버스' (Converse). 컨버스는 계절, 기후와 상관없이 전 세계 소비자들로부터 높은 인기를 끌고 있다.

컨버스의 신발을 상징하는 것은 하단에 있는 두 개의 작은 신발 끈 구멍 '아일렛'이다.

얼핏 보면 신발 안에 공기가 잘 통하도록 해 발 냄새를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보인다.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두 개의 아일렛은 통풍을 위해 만들어진 게 아니다.

컨버스가 세계 최초의 농구화였다는 점을 기억하면 이해가 쉽다.

농구화는 일반 운동화 달리 발과 밀착해야 한다.

계속 뛰어다니고 순식간에 방향을 전환해야 하기 때문이다.

컨버스는 두 개의 아일렛을 추가하는 것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했다.

신발 하단 두 개의 아일렛을 이용해 신발 끈을 묶으면 발과 신발 사이 빈틈이 줄어들

다. 평소에는 사용할 일이 없지만, 갑자기 농구 등 운동을 하게 될 때 두 개의 아일렛을 이용해 신발 끈을 조이면 색다른 느낌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이유로 컨버스의 신발 끈은 다른 브랜드의 그것보다 길다.

이데일리

남선알미늄
 (주)미안 ACE WINDOW
 이지폴딩
 현대홈도어

PT. KAISAR SINAR HISASH
www.siansash.co.id / www.pintulipat.id

우리는 窓門을 만듭니다!

시안의 窓門 전문가들이 직접 설계, 제작하고
책임시공을 약속합니다.

HEAD OFFICE / FACTORY JAKARTA
 Jl. Pahlawan KM 1, Karang Asem Timur Citeureup – Bogor 16810 Indonesia
 Telp. : 021-8794-3838 Fax.: 021-8794-3839
 Email : info@siansash.co.id

나이키, 스마트 운동화 공개 ‘자동 사이즈 조절’



스포츠용품업체 나이키가 신기만 하면 저절로 발에 맞춰지고, 스마트폰으로 조절도 가능한 운동화를 내놓는다. 나이키는 1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시에서 상품 공개 행사를 열어 이런 기능을 지닌 운동화 ‘나이키 어댑트 BB’를 선보였다고 AFP통신과 블룸버그통신 등이 보도했다.

이 운동화는 신발 끈이 아예 달려 있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

대신 발을 넣기만 하면 신발 모양이 전자동으로 발에 맞게 조이거나 느슨하게 변한다. 신발에 가속도계와 자이로스코프(회전 센서) 등의 센서가 탑재돼 있어 사용자 개개인의 움직임에 파악하고 이에 맞출 수 있기 때문이다.

신발과 연동된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거나, 신발 옆에 달

린 단추 두 개를 누르는 방식으로도 착용감을 조절할 수 있다.

나이키는 이 신발이 “스마트폰 두 대가 양발에 달린 것과 같다”며 추후 앱 업데이트를 통해 신발의 성능이 향상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또 신발의 내장 충전지가 약 2주마다 충전이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2016년 나이키는 최초로 전동으로 끈을 조절하는 운동화를 개발하며 1980년대 공상과학 영화 ‘백투더 퓨처’에 나온 상상의 신발을 구현해 주목을 받았다.

당시 나온 제품은 신발에 달린 단추를 누르는 방식으로만 조절할 수 있었다.

농구화 버전으로 먼저 출시되는 ‘나이키 어댑트 BB’는 미국프로농구(NBA) 보스턴 셀틱스 선수인 제이슨 테이텀이 17일 토론토 랩터스와 경기에서 신고 뛰며 테스트할 예정이다.

정식 출시는 내달 17일로 예정돼 있다.

전자신문

신발멀티샵 ‘씨푹(CFOOT)’, 조던 마니아층 관심집중... 이유는?



2018년 3분기 통계청의 ‘온라인 해외 직접 판매 및 구매 동향’에 따르면 온라인 해외 직접 구매액은 6,956억 원으로 그 중 의류·패션 및 관련 상품이 2,470억 원을 차지했다.

이는 2017년 동분기대비 35.9% 증가한 수치로 매년 해외직구로 의류 및 잡화를 구입하는 사람들이 증가하는 추세다. 해외직구족이 늘어남에 따라 해외구매대행 사이트 또한 우후죽순 생겨났다.

외국어로 되어 있는 해외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에 불편함을 느끼거나 해외배송비가 부담스러운 소비자를 타겟으로 한 것이다.

최근 가품 판매, 연락두절, 사이트폐쇄, 파손 상품 판매, 오배송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잇따라 보고되며 해외구매대행 쇼핑물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있다.

이 가운데 ‘씨푹(CFOOT)’이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정품 멀티샵으로 떠오르고 있다.

소비자가 주문한 상품들은

모두 정식 세관통관절차를 거치고 있어 밀수입 혹은 이미테이션 상품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다.

씨푹은 발매예정인 조던의 ▲조던4 타투 ▲조던4 핫팬치 ▲조던4 레이저 블랙 ▲조던6 플린트 ▲조던5 레이니를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꾸준한 인기를 누리고 있는 ▲조던1 스파이더맨 ▲조던1 스타 이즈 본 ▲조던1 브레드밴드 ▲조던1 골드토 ▲조던3 서울 ▲조던3 블랙 시멘트 ▲조던4 트래비스 스캇 조던4 오레오 ▲조던4 시멘트 ▲조던4 피어팩

▲조던6 카마인 ▲조던6 블랙 인프라레드 ▲조던6 게토레이 ▲조던6 시드니 ▲조던6 얼터네이트 ▲조던6 마룬 ▲조던6 블랙캐트 ▲조던6 스포츠 블루 ▲조던8 얼터네이트 ▲조던11 이스터 ▲조던11 원라이크 ▲조던11 캡 앤 가운 ▲조던11 스페이스잼 ▲조던11 조지타운 등을 판매하고 있다.

조던 뿐만 아니라 나이키의 인기 제품 ▲에어맥스97 ▲나이키 코르테즈 ▲나이키 에어 포스 ▲나이키 M2K ▲나이키 오프화이트를 비롯해 아디다스의 ▲이지 500 블랙 ▲이지 500 슈퍼펀 엘로우 ▲이지부스트 350 지브라 ▲이지부스트 350 참깨 ▲이지부스트 350 화이트 ▲이지부스트 350 스태틱 ▲이지부스트 350 에브리 엘로우 등의 제품을 홈페이지에서 만나볼 수 있다.

최근 해외구매대행 사이트의 가품 판매로 인한 피해사례 뉴스가 속속 보이는데, 씨푹은 앞으로도 씨푹의 이름을 걸고 정품 제품만을 판매할 것을 약속드린다”며, “씨푹을 가품 조던에 상처 입었던 조던 마니아들의 ‘성지’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산업장관, “중기업들, 인니 섬유 산업에 10조 루피아 투자 계획”



인도네시아 아이르랑가 산업장관은 최근 중국 기업들이 올해 인도네시아 섬유 산업에 10조 루피아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중 무역 전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생산 거점을 중국에서 인도네시아로 이전함으로써 미국이 중국 제품에 부과하는 높은 관세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아이르랑가 장관은 “중국 기업들은 방사 및 섬유, 염색, 인쇄 등 섬유 산업의 전방에 투자하려고 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그는 또한 “섬유 및

신발 분야의 세계적인 기업들이 중국에서 공장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하며 “무역 전쟁이 인도네시아 제조업에 새로운 사업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이르랑가 장관은 또한 철강의 대미 수출액에 대해 “지난해 1~11월은 전년 동기 대비 88%의 대폭적인 증가를 기록했다”고 설명하며 “중국과 미국에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국내 기업들이 가동률과 생산 능력을 확대하는 움직임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장관은 “무역 전쟁으로 결국 세계 경제가 침체되고, 세계 경제의 성장률이 현재 3~3.6%의 낮은 수준으로 인도네시아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경제에 좋은 영향을 기대할 수 없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SunStar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대한민국 대표 재봉기, 자수기!

썬스타 인도네시아 직영법인

실속형 패턴출시

- 전회전 가마타입
- 가로300,세로 200 사이즈 (mm)
- Max Speed 2,200rpm

- ▶ FAST, ACCURATE SERVICE UP
- ▶ 재봉기 / 자수기 부품
- ▶ 보드수리 완벽구비!!!



신형패턴 SPS/R-3020H, 2010H

SunStar
SWF

인도네시아 총괄 강현욱 이사

재봉기 오경환 팀장 001-62-821-4303-8822
자수기 강현욱 이사 001-62-858-8896-7825

okh@sunstar.co.kr
kevinkang1103@gmail.com



신성철

데일리 인도네시아 발행인

3.1운동과 인도네시아 한인사회

인도네시아에서 조선인의 독립운동

1920년 9월 조선인 장운원바타비아(옛 자카르타)에 와서 독립운동과 현지 조선인 지원
 1942년 9월 일본 군속으로 조선청년 1,400명이 자바에 올
 1944년 12월 <고려독립청년당> 결성
 1945년 1월 중부자바 주 암바라와 지역 1차 거사
 1945년 1월 자카르타 탄중뿌리옥 2차 거사 좌절
 1945년 9월 조선인 자카르타에서 <재자바조선인민회> 설립

자료출처 : 인도네시아 한인 개척사 적도에 뿌리내린 한국인의 혼 / 김문환 저/2013

3.1운동은 인도네시아 한인사회의 초석을 닦는 계기가 됐다. 재인도네시아 한인 1호로 기록된 장운원은 1919년 당시 국내 은행에 근무하면서 은행 돈의 일부를 3.1운동 자금으로 빼돌렸다가 일본경찰에 적발되자, 임시정부가 있던 중국으로 탈출했고, 이어 1920년 9월에 바타비아(Batavia, 자카르타의 옛 이름)로 왔다. 재 인도네시아 한인사 연구자인 김문환 선생에 따르면, 장운원은 일본 패망 후 바타비아에 설립된 재 자바조선인민회와 고려독립청년당을 후원했고 일본 군속으로 왔던 조선인들의 귀국을 물심양면으로 도왔다.

태평양전쟁 직후인 1942년 일본이 인도네시아를 점령했을 때, 제국주의 일본은 조선인을 일본군 소속 포로감시원, 위안부, 농업전문가 및 민간인 신분의 홍보 영화감독과 통신사 직원 등으로 인도네시아에 파견했다. 조선인들은 자의반 타의반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강제로 인도네시아로 오게 됐고, 고국으로 돌아갈 때도 기적이라 부를 만한 힘과 과정을 통해 일부만 돌아갔다. 나머지 사람들은 낯선 땅에서 죽어 갔고 아주 소수만 정착해 후손을 남겼다. 당시 인도네시아인들은 그들을 일본인이라 불렀고 조선인이라고 아무리 설명해도 알아듣지 못했다.

3.1운동 후 100년이 2019년 1월 현재 한국인 3만여명이 인도네시아에 거주하고 있다. 회사 또는 단체가 파견한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자발적으로 인도네시아행을 결정했다. 현지 주요 도시에서 한인회가 생겼고, 한국어를 모르는 인도네시아인은 거의 없을 듯하다. 인도네시아인들은 K-pop과 K-pop 가수를 좋아하고 한국드라마를 보고 한국음식을 즐긴다. 이제 우리는 한국에 돌아가고 싶으면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다.

일본 식민지 하의 인도네시아는 어땠을까? 인도네시아 때문

호 뿌라무디아 아난다 두르는 <작가의 망명>이라는 대담집에서, “일본군이 자바에 상륙하고 3일만에 거의 모든 일본군인이 자바 여성을 강간했습니다. 당시 여성들은 얼굴에 석탄가루를 묻혀 군인들이 여성이라는 걸 알아보지 못하게 했죠. 나이 든 여성들 심지어 할머니들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라고 증언했다. 또 “1943년 일본군이 수세에 몰리자 강제노동자(로무샤 romusha) 체제를 도입했죠. 인도네시아 안팎의 요새 건축에 동원된 농민 70만명 중 30만명이 죽었습니다” 라고 말했다.

한국은 지정학적 위치 그리고 인도네시아는 지정학적 위치와 천연자원 때문에 강대국들이 영향력을 미치고 싶어하는 국가다. ‘인도네시아의 행동하는 양심’ 이라 평가받는 언론인이며 소설가인 목타르 루비스는 자신의 소설 『사랑과 죽음』(1977) 속 인물 사델리(Sadelli)를 통해 인도네시아 독립투쟁이 결코 인도네시아 민족만이 아니라 국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웃국가나 민족을 설득해 국제사회의 공조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래서 그는 지도자의 리더십에 희생정신, 포용력, 청렴성 등만이 아니라 외국어와 지적 능력을 통한 외교 전략을 구사하는 것까지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뿌라무디아 역시 “오늘날 세계 어떤 나라든 외부의 개입을 피할 수 없고 독자적으로 뭔가를 하려면 더욱 어려워졌다”라며 강대국의 간섭을 막기 위해 약소국들이 연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이러니하게도 인도네시아는 일본 침략으로 네덜란드 식민지배에서 벗어났고, 태평양전쟁에서 미국이 승리함에 따라 일본 식민지배에서 벗어났다. 1945년 네덜란드가 연합군의 일원으로 다시 인도네시아로 돌아왔을

때 족자카르타 술탄 하명꾸부워노 9세 같은 민족지도자들을 중심으로 인도네시아인들도 적극적으로 독립전쟁을 했고, 태평양전쟁 후 인도네시아에 남은 일본군과 양칠성 같은 일본 군속의 일부 조선인들도 네덜란드에 대항하는 전투에 참여했다. 더불어 인도네시아는 인도와 미국 등 우

남과 북의 적대관계 때문이 아니라, 한반도 밖에서 도래한 외세끼리의 충돌 때문에 일어났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한민족 스스로는 남과 북을 갈라놓은 38선이 있었다는 사실조차 잘 알지 못했다” 라고 이 책에 기록했다.

우리는 왜 독립국가를 원하나? 우리가 바라는 미래는 어떤 모습



▲ 장운원 선생의 가족사진 [사진출처=김문환 재 인도네시아 한인사 연구자]

방국의 외교적 지원을 통해 네덜란드로부터 완전히 독립할 수 있었다. 뿌라무디아는 독립 후에도 미국과 서방국가, 중국, 소련, 일본 등이 인도네시아에서 수카르노 정권의 몰락과 수하르토 정권의 등장과 장기집권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해왔다고 <작가의 망명>에서 지적했다.

한반도는 일본이 물러난 후 미국과 소련의 개입으로 신탁통치와 분단을 겪었고, 무력으로 통일하겠다는 김일성의 남침으로 한국전쟁을 겪는다. 한국전쟁은 한민족간 내전으로 시작돼 미국, 중국, 소련 등의 강대국의 참전으로 국제전으로 확대된다. 목타르 루비스는 유엔중군기자로 한국전에 참가한 후 한국전 중군기(Catalan Perang Korea)를 발표했다. 그는 기관총 탄알이 복부를 관통한 여성을 목격한 후 “이 모두가 도대체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무슨 소용? 인간성의 말살이었다. 더욱이 이 모든 것이

일까? 목타르 루비스는 자신의 소설 『사랑과 죽음』(1977) 속 인물 조한을 통해 독립투쟁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우리는 존엄성과 자유, 그리고 권리를 가진 민족으로 살기 원하므로 독립을 위해 투쟁하는 것이다. 우리 일은 우리가 결정할 수 있고, 우리 자신이 주인이 되며, 다른 민족의 노예가 아닌 우리 민족이 주인이 되기 위해 투쟁하는 것이다. 우리가 다른 민족과 동등한 존엄성을 가진 민족으로서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기 위해 독립투쟁을 벌이는 것이다.”

박찬승 한양대 사학과 교수는 최근 한국 언론에 낸 칼럼에서 3.1운동이 무기력했던 독립운동의 전환점이 되어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과 국내외 독립투쟁으로 이어졌다고 평가했다. 그에 따르면, 당시 세계사적 대전환기였고 1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유럽의 약소국들이 독립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월슨 미국 대통령

의 민족자결주의가 유럽 외 다른 아시아와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까지 해당될 지 알 수 없는 애매한 상황이었지만 조선의 민족운동가들은 ‘이것이 실오라기 같은 것일지라도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3.1운동을 전개했다.

최근 우리나라 영토에서 일본 해상초계기 저공위협 비행 사건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일본 해상자위대 소속 초계기가 2018년 12월 20일부터 2019년 1월 23일까지 총 4차례나 저공비행으로 대한민국 해군 함정을 위협했다. 유우 한국항공대학교 초빙교수는 최근 한국 언론에 쓴 칼럼을 통해 지금까지 일본 정권은 북한의 위협을 군사력 증강과 국내 보수 정치세력의 결집용 명분으로 적절히 이용해왔으며, 전쟁이 가능한 국가, 공격이 가능한 군대로 전환하기 위해 철치부심하는 일본으로서는 동북아 긴장 상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썼다. 또 그는 “앞으로 남북관계가 개선될수록 일본은 새로운 안보위협을 만들어내기 위해 분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우 교수는 이런 일본의 입장에 대해 남북관계 개선이 일본을 포함한 주변국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공유·공감함으로써 그들이 불안감을 느끼지 않고 한반도 평화를 진심으로 지지할 수 있도록 하는 외교적인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우리 앞에는 남북분단, 일본 도발, 중국 팽창, 미국 패권 등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쉽지 않은 과제들이 놓여있다. 한반도에서 청일전쟁, 일제침략, 한국전쟁을 겪는 동안 몸과 마음과 재산을 바쳐 싸운 조상들 덕분에 지금 우리는 평화롭게 한반도와 인도네시아를 오가며 살고 있다. 우리와 우리 후손들도 수많은 난제를 해결하며 한반도에서 대한민국이라는 독립국가를 유지하며 평화롭고 풍요롭게 살아야 한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

애국가 1절 첫 번째 소절 가사에는 한반도에서 영원히 평화롭게 살고 싶은 한국인의 소망이 담겨 있다. 소망을 실현하는 일 그리고 미래를 만드는 일,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끝)

도서출판/인쇄 광개토

실크로드 인도네시아는 디자인 연구소로서 그간 코파의 힘, 미디어 코리아, 건설신문 창조를 발행 해 왔고 기업 CI, 홍보용 카달로그, 북 디자인외 많은 프로젝트를 수행 해 왔습니다. 이제 직접 인쇄공정을 수행 해 낼 수 있는 설비와 시스템을 갖추고 고객 여러분의 만족에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늦깎이 출발이지만 항상 곁에서 함께 하길 바랍니다.

이런 제품들을 제작합니다

카달로그 / 도서출판 / 브로슈어 /스티커 /라벨 / 카렌다 / 행택 / 기타

0858-9060-0962 khong3000@gmail.com

2019년 새해에도 변함없이 함께 하겠습니다!



인도네시아 뎅기열 피해 확대...사망자 171명으로 늘어

올해 들어 1만7천515명 발병...” 내달까지는 환자 계속 늘듯”

인도네시아에서 열대성 질환인 뎅기열이 확산하면서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7일 트리뷴 뉴스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보건부는 지난달 1일부터 이달 6일 사이 전국에서 1만7천515명의 뎅기열 확진 환자가 발생해 171명이 숨졌다고 밝혔다. 가장 피해가 컸던 지역은 동(東)자바 주로 3천74명이 감염돼 52명이 숨졌다. 서(西)자바 주와 동(東)누사

틱가라 주에서도 각각 2천461명과 1천354명이 뎅기열에 걸렸으며, 중앙 자바 주(1천333명), 람뽕 주(1천157명) 등에서도 다수의 환자가 나왔다. 북(北)술라웨시주의 주도인 마나도, 동자바 주 뽀노고로군(郡), 누사 틱가라 띠무르주의 서(西)망가라이 군과 꾸뽕시 등 일부 지역에는 보건비상(KLB) 상황이 선언됐다고 언론은 전했다. 인도네시아 보건부의 시피

나디아 파르미지 매개체·동물원성 전염병 담당 국장은 “다행히 이달 들어서는 새로 발생하는 환자 수가 다소 줄어드는 추세다. KLB 상황이 선언됐다가 해제된 지역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우기(10월~이듬해 3월)를 맞아 연일 비가 내리면서 뎅기열을 퍼뜨리는 모기가 번식하기 쉬운 환경이 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내달까지는 환자 수가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뎅기 모기에 물려 감염되는 바이러스성 질환인 뎅기열은 3~8일의 잠복기를 거쳐 고열, 두통, 근육통, 백혈구감소증, 출혈 등의 증상을 보인다. 이런 증상은 대부분 심각한 증세 없이 1주일 정도 지나면 호전되지만,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고 예방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기에 각별히 주의해야 할 질병으로 꼽힌다. 인도네시아에선 지난 2016년의 경우 한 해 동안 20만4천171명이 뎅기열에 걸려 1천598명이 숨졌고, 2017년에는 6만8천407명이 발병해 493명이 목숨을 잃었다.

2018년 연말 선물로 좋았던 남성 러닝화 가이드



▲ 언더아머 UA 후버 팬텀 리플렉티브

모든 남성 러너들이 동일한 유형의 스니커즈를 원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러너에게 선물할 러닝화를 고르는 것이 어렵다. 하지만 러닝화 애호가들이라면 누구나 좋아할 만한 유형 7가지를 다음과 같이 선정했다.



▲ 나이키의 에어 줌 보메로 14 (Air Zoom Vomero 14)

착용감이 좋은 러닝화를 찾고 있다면 써코니의 킨바라 9가 적절하다. 이 제품은 에너지를 되돌리는 뛰어난 성능을 가진 에버런(Everun) 쿠션을 장착했으며 스니커즈를 가볍게 하기 위해 디자인한 미니멀리스트 어퍼가 특징이다.



▲ 브룩스의 레벨 2 (Revel 2)

가볍게 달릴 수 있으며 멋진 스타일의 스니커즈를 찾고 있다면 브룩스의 레벨 2 퍼포먼스가 미적 요소와 함께 양말 흡수 미드솔의 특성을 갖춘 상품이다.



▲ 뉴발란스의 1260v7

안정성이 있는 신발이 필요하다면 뉴발란스의 1260v7이 확실한 선택이다. 플러쉬 소재의 미드솔 쿠션과 개선된 충격 흡수 기능이 있는 갈색 고무의 아웃솔이 특징이다.



▲ 아식스의 젤 카야노 25 (Gel-Kayano 25)

역대 가장 사랑 받고 있는 러닝화 중 하나인 이 아식스 제품은 안전성 및 지지 체계를 강화해 회내근에 무리를 주지 않습니다.



▲ 나이키의 에어 줌 보메로 14 (Air Zoom Vomero 14)

이 상품은 나이키만의 기술로 생산된 쿠션이 두 개 장착된 신발로써 전장 줌 에어가 특징이다. 그 결과, 부드러운 착화감을 느낄 수 있다.



▲ 언더아머의 UA 후버 팬텀 리플렉티브 커넥티드 (UA Hovr Phantom Reflective Connected)

밤에 조깅을 즐기는 사람을 위해 디자인한 이 제품은 어퍼의 형광 패넬이 특징이다. 선수들을 위해 성능 개선에 중점을 뒀을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과 맵마이런(Map-MyRun) 앱을 연동한 UA 리코드 센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 아디다스의 울트라 부스트 4.0 (Ultra Boost 4.0)

널리 인정 받고 있는 부스트 에너지 반환 쿠션을 장착한 이 스니커즈는 아디다스만의 기술로 고안한 탄성 및 통기성이 훌륭한 프라임 니트 어퍼가 특징이다.

KOFA 광고를 제안합니다.

KOFA에서는 소식을 통해 신발관련 업체들의 영업과 마케팅에 필요한 광고를 받고 있습니다.

1, 개요

주요대상 : 신발업체, 부품업체, 및 기타 관련업체
광고매체 : 코파소식지(월간)

특징

- 1) 소식지는 KOFA 전 회원사에 다이렉트 메일로 매일 발송되며 관련 회원사 약 200여 업체 대표님과 그 직원 모두에게 매체 도달률 100%, 가독률 100%의 전문 소식지입니다.
- 2) 전달 하고자하는 정보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홍보 할 수 있으므로 설득력이 높습니다.

2, 광고 상품안내

- 1) 연간(12회) 계약 혜택 : 20% 할인, 광고 디자인 무료, 기획기사 1회 취재 및 게재
- 2) 6개월(6회) 계약시 혜택 : 10% 할인, 광고 디자인 무료, 기획기사 1회 취재 및 게재

3, 연락처 및 문의처

KOFA 사무국 : 021-5579-7281 (mr. kang) 0858-9060-0962



대한민국 No.1 보일러

삼호 보일러

소각 스팀 보일러

- 용량 : (0.5T/H~5.0T/H)×1.0Mpa
- 연료 : 섬유 / 목재 / 종이 / 석탄



입형 연관식 보일러

- 용량 : (0.1T/H~2.0T/H)×1.0Mpa
- 연료 : 경유, 가스, 중유

특허번호 10-0870543 호

- 콘덴싱 보일러
- 횡형수관식 보일러
- 수관식 보일러
- 노통연관식 보일러
- 초소형노통연관식 보일러
- 무압관수식 보일러
- 진공온수 보일러
- 관류형 보일러
- 소용량입형연관식

인도네시아 공식 대리점

자카르타 : 유성열 Hp : 0812 1902 2247 E-mail : hanshin2009@hotmail.com
한상윤 Hp : 0822 9999 1447
Ruko Tataka Puri Blok C1 No. 25 Jl. Curug Raya Bitung Tangerang 15810
Tel. 021.5949.4000 / 5949.4222 Fax. 021.5949.4666

스마랑 : 정연오 Hp : 0815 1439 0006
Ruko, Jl. Gotri Jepara, Ds. Kalipucang Wetan RT. 001 RW. 002 No. 3 & 4
Kec. Welahan Jepara - Jawa Tengah

株式会社 三湖ボイラー
SAMHO BOILER CO., LTD.
www.samhoboiler.com

PT. HANSHIN AIR COMPANY

[미국] 베자, 2018년 신고 싶은 브랜드로 선정되었다



거리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베자의 화이트 스니커즈 (그리고 그 시그니처 "V")를 본 적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제품을 매장이나 18만4,000명의 팔로워를 거느리고 있는 베자의 인스타그램에서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혹은 지난 가을 왕실 여행 당시 메건 마클이 이 신발을 신고 있던 모습을 우연히라도 여러 매체에서 본 적이 있을 수도 있다.

글로벌 패션 검색 플랫폼인 리스트 (Lyst)에 따르면, 요점은 이 친환경 신발이 "2018년 신고 싶은 브랜드"로 선정됐다는 것이다.

리스트에 따르면, 2018년 한 해 스니커즈 브랜드 검색이

113% 증가했다. 그리고 인스타그램 선정 상위 10개 브랜드에 베자의 브랜드명이 당당히 오른 것이다.

이 프랑스 브랜드는 프랑스와 브라질에서 스니커즈를 생산하고 있으며 투명성과 유기 소재, 공정 거래를 자부하고 있다.

그리고 V-10 리더 트레이닝 슈즈를 신은 마클의 사진이 여러 매체에 오르면서 인스타그램에는 수천 개의 '좋아요'와 함께 여러 의견들이 쏟아졌다.

특히 베자의 스니커즈를 신은 메건 마클의 사진에는 2만 개가 넘는 포스트가 게시됐다.

크리스프, 화이트 베자 스니커즈 베자 플라스틱 병으로 획기적인 스니커즈를 제작한다.

베자 (VEJA) 프로젝트는 스니커즈를 해체해 원자재에서 완제품으로 다시 생산해 긍정적인 경제 및 사회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베자 스니커즈에 긍정적인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새롭고도 획기적이며 생태적인 소재를 탐색하고 있기 때문에 R&D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2014년부터 브

라질 상파울로와 인접한 산토안드레에서 생산한 패브릭으로 작업을 하고 있다.

보틀메쉬는 100% 재활용 플라스틱 병으로 만든 최초의 패브릭이다.

이 업사이클링 프로젝트는 플라스틱 병을 주웠던 리우데자네이루와 상파울로 거리에서 시작했다. 플라스틱을 가루로 분해한 후 압출을 해 섬유로 만들자 방수 및 내성이 있는 메쉬로 탈바꿈했다.

베자의 모든 신발은 재활용 플라스틱 병 3개를 사용하고 있어, 폐기물이 실제 경제적 및 사회적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채식주의자들이 먼저 시작했다.

와타 화이트 마살라 (Wata White Marsala)는 유기농 면과 아마존 숲에서 채취한 야생 고무로 제작했다. veja. store에서 구입이 가능하다.



伊 신발, 中 시장 수출 20% ↑

-2018 1~8월 통계
-총 수출 3.7% 증가
이탈리아 신발 산업이 2018년 1월에서 8월까지 8개월 동안 수출 시장을 중심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물량 기준으

5만개의 스와로브스키 크리스탈로 화려하게 변신한 나이키 에어맥스 97

나이키는 지난해 에어맥스 97s (Air Max 97s) 20주년을 맞아 스와로브스키 크리스탈로 어퍼를 장식한 제품을 선보였었다. 그리고 화려한 장식을 한 또 다른 20주년 기념 상품을 출시했다.

얼마전 출시된 "메탈릭 골드" 에어맥스 97은 전통적인 메쉬 소재의 어퍼에 스와로브스키 크리스탈 패브릭으로 강조한 디자인이다.

크리스탈 패브릭은 미세한



크리스탈이 빼곡히 박혀 특별한 광택을 내고 있다.

그리고 이 크리스탈 패브릭은 바느질을 하지 않고 열처리를 통해 가공을 했다 (여성용 7사이즈 어퍼에는 약 5만 5,690개의 스와로브스키 크리스탈이 장식되어 있다).

추가 장식을 위해 텅에는 나이키를 나타내는 빨간색 스우시로 장식했으며 미드솔 옆면에는 흰색의 클래식한 에어를 장착했다.

"메탈릭 골드" 나이키 에

어맥스 97 LX 스와로브스키는 2018년 12월 26일부터 나이키닷컴 및 리테일 숍에서 400달러의 가격에 판매시작했다.

나이키 우먼 라인의 디자이너들이 오스트리아의 스와로브스키 본사를 방문한 후 신발에 스와로브스키 크리스탈을 사용한 최초의 상품은 에어맥스 97 LX이다.

이 신발은 2017년 봄 블랙과 화이트 색상으로 처음 선을 보였다.

"스와로브스키는 혁신과 창의성이 결합된 문화"라고 스와로브스키 이사회 멤버인 Markus Langes-Swarovski는 말했다.

"우리는 나이키와 함께 이 특별한 디자인을 개발하게 되어 기쁘다.

상징적인 360도 실루엣의 에어맥스 97은 우리에게 영감을 불어넣는 상품"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Investment Opportunities to a Human resources

1. 인도네시아 전지역(공장, 주택, 스포츠센터) 설치 가능
2. 설계부터 인테리어까지 책임준공 서비스
3. 스크린골프 & 영화감상 & 노래방 3 in 1
4. 1년간 무상 A/S(정기방문)

PT. TEEUP VISION INDONESIA
+62-813-1129-8822



비용 대비 실용적인 브랜드별 남성용 스노우부츠

구입 가능한 예산 내에서 올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겨울 부츠를 선정했다.

올 겨울 유행하는 기능성 제품들은 방수 패브릭과 온도 조절 단열재, 튼튼한 아웃솔 등으로 외관과 성능 모두를 충족했다. 다음은 살로몬, 팀버랜드 및 어그 같이 대표적인 부츠 브랜드에서 올 겨울 선보이고 있는 제품들이다.



바핀의 피벗 부츠 (Pivot Boot)

8겹의 내부 단열재와 외부 열 반사 기술을 최대 -94°F에서도 발을 따뜻하게 유지해준다.

그리고 플러쉬 패브릭 소재의 안감은 수분을 없애고 보아 레이싱 시스템 (Boa lacing system)으로 발 뒷부분도 편안한 착화감을 준다.

280달러로 출시된 이 부츠는 현재 40% 세일가에 판매되고 있다.



살로몬의 X 울트라 미드 2 스파이크 GTX 윈터 부츠 (X Ultra Mid 2 Spikes GTX Winter Boot)

튼튼한 이 하이킹 부츠는 고어 텍스 방수막을 사용했으며 겨울용 러그 솔과 밀창 스파이크를 사용해 눈과 빙판에도 그립감이 뛰어나며 오소라이트 (OrthoLit) 컴포트 밀창을 사용했다.

본래 180달러에 출시된 이 부츠는 현재 126달러에 판매되고 있다.



팀버랜드의 유로 하이커 셸 토 워터프루프 부츠 (Euro Hiker Shell Toe Waterproof Boot)

Boot)

오리에게 영감을 받은 제품으로 아치형 지지대가 있는 견고한 몸체와 내구력과 인장이 있는 부분적 재활용 러그 아웃솔이 특징이다. 본래 175달러에 출시된 이 부츠는 현재 105달러에 판매되고 있다.



어그의 하넨 TL (Hannen TL)

솔기 밑패 구성으로 디자인한 클래식 레이스 업 스타일로서 추운 겨울 실외에서 건조하고 따뜻한 착화감을 준다.

탈부착이 가능한 쿠션 인솔을 맞춤형 지지대로 사용할 수 있다.



노스페이스의 백 투 버클리 부츠 (Back-to-Berkeley Boot)

노스페이스의 클래식한 스피드 레이스 방수 제품은 스웨이드를 덧댄 볼리스틱 메쉬 소재로 어퍼를 디자인했다.

내부에는 프리마로프트 에코 (PrimaLoft Eco) 단열재를 사용해 보온성을 더했고 TNF 윈터 그립 고무 소재의 솔을 사용해 안전성을 확보했다.

본래 130달러로 출시됐지만 현재 115달러에 판매되고 있다.



가성비 최적의 제품을 공급합니다

공장 유니폼
단체복
골프복
기타

JWjindohwang@gmail.com
0812 1324 1251
021 5518 037

특허청,

상표 브로커 K-브랜드 무단선점 경보시스템 운영



특허청, 2019년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 사업 시행

특허청이 올해 해외 상표 브로커에 의한 K-브랜드 무단선점 대응 조기 경보시스템을 기존 중국지역을 넘어 베트남까지 확대 운영한다.

특허청은 6일 해외 진출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혁신 성장을 밀착 지원하기 위해 해외 지식재산센터 (IP-DESK)를 추가 배치하고,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 양상을 고려해 지재권 보호망을 구축하는 등 예산 191억원을 투입해 해외 지재권보호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IP-DESK는 우리 기업 진출이 활발한 해외 현지에서 지재권 확보와 분쟁대응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올해 중국, 미국, 베트남, 태국, 독일, 일본, 인도네시아, 인도 등 8개 국가 15곳에서 운영한다.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해외 경쟁사의 위협특히 분석을 통한 분

쟁 예방 전략 또는 경고장·소송 등 분쟁 발생 때 필요한 대응 전략도 제공한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자사에 맞는 해외 지재권보호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해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를 발급한다.

동일한 지재권 이슈를 보유한 기업 간 공동대응 체계를 마련해 분쟁 해결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사업도 올해 25개 협의회를 지원할 예정이다.

해외 상표 브로커에 의한 K-브랜드 무단선점 대응 조기 경보시스템을 베트남까지 확대하고, 해외 전자상거래업체와 긴밀히 협력해 해당 온라인 쇼핑몰에서 유통되는 위조상품의 유통차단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허청은 지난해 전체 14곳의 IP-DESK에서 7천590건의 지재권 법

률상담을 했고, 분쟁컨설팅으로 547개 기업, 9개 공동대응협의체 구성으로 82개 기업을 지원했으며, 중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위조상품 게시물(URL) 2만1천854개를 삭제하는 성과를 냈다.

목성호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해외 지재권 분쟁 지원사업으로 우리 기업들이 혁신 역량을 키우고 이를 바탕으로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하길 바란다”며 “외교부, 산업부, 코트라,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물론 해외 지재권 유관기관들과 협력해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이 활성화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이나 기관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 또는 코트라 홈페이지(www.kotra.co.kr),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홈페이지(www.k-ipc.or.kr)에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TOILON
ROOF
SINCE 2003
단열재 지붕 벽체 전문생산업체

PT. TOILON INSU PANEL
Jl. Raya PLP Curug - Tangerang
Telp. (021) 5579 7181 Fax. (021) 5576 9926
Mobile. 0811 843 211
Web. www.toilon-insupane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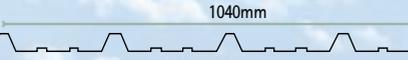
래직한 근로환경은 친환경 단열이 우선!

토일론 단열 지붕의 장점

1. Anti Panas 단열효과
2. Anti Bising 흡음효과
3. Anti Api 난연효과
4. Anti Air / Water Proof 방수효과
5. Anti Fungal, Kimia 항곰팡이, 항산성 및 알칼리
6. Simple and Quick Construction 빠르고 간편한 시공
7. Long Duration 오랜 수명

PROFILE

전제품 8mm Polyethylene Foam 열접착

1. 35mm Trimdek	
2. 25mm Trimdek	
3. 35mm Spandek	
4. Boltless-Seaming Type 110mm (Roll on Site)	
5. Boltless-Seaming Type 55mm	
6. Genteng Metal (기와)	

저희 회사 전 제품의 철판은 호주가 본사인 PT. NS BLUE SCOPE INDONESIA로부터 공급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제품은 8mm Polyethylene Foam을 열접착 하고 있습니다. Aluminium Foil부착제품도 생산합니다.

공사건설현장




Parkland Indonesia
Posco Indonesia



아세안 · 인도 언론, ‘북미 2차 정상회담 개최’ 집중 보도 1차 회담 개최지 싱가포르 신문, 홈페이지 첫 화면에 소개

▲ 자카르타포스트 캡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27~28일 베트남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2차 북미 정상회담을 개최한다고 발표하자 1차 회담 개최지였던 싱가포르 등 아세안과 인도의 언론이 관련 소식을

비중 있게 보도했다. 싱가포르 일간 스트레이츠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5일 새해 국정 연설에서 관련 내용을 발표하자마자 홈페이지 첫 화면에 “트럼프 대통령이 2월 27~28일 김정은 국무위원

장과 베트남에서 만난다”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스트레이츠타임스는 지난해 6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싱가포르에서 회담할 때 악수한 사진 등을 함께 배치하면서 “양측이 2차 회담 장소로 중립적인 지역을 골랐다”고 분석했다. 싱가포르 방송인 채널뉴스아시아는 아예 북미 2차 정상회담 소식을 홈페이지 머릿기사로 올리며 비중 있게 다뤘다.

채널뉴스아시아는 “우리의 인질들은 집에 왔고 핵실험은 중단됐으며 15개월 동안 미사일 발사는 없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등을 자세하게 소개했다.

동남아시아 최대 경제국으로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 남북한 정상을 초청하는 등 한반도 문제에 꾸준히 관심을 가져온 인도네시아도 이번 북미 정상회담 개최 소식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태국 유력 신문인 방콕포스트도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베트남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중요한 회담을 연다고 관심을 나타냈다.

방콕포스트는 워싱턴발 AP 통신 기사를 링크한 기사에

서 북한 비핵화 이슈는 미국이 지난 20여년간 추구했지만 이를 수 없었던 사안이라고 소개했다.

타임스오브인디아, 힌두스탄타임스 등 인도의 유력 언론들도 북미 2차 정상회담 뉴스를 잘 빠르게 전했다.

관련 소식이 뉴스통신사 등 주요 외신에 보도되자 곧바로 홈페이지에 이를 옮겨 실었다.

타임스오브인디아는 이번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의 영변 핵시설 폐기 선언과 미국의 종전선언 등이 거론될 수 있다는 전문가 분석 등을 전했다. [연합뉴스]

주목받는 베트남 ‘도이머이’ 개혁 · 개방 모델

공산당 독재 유지하며 시장경제 도입...외국자본 유치해 고속성장 피치 “北에 베트남식 개혁이 최적”...빈부격차 · 부패 등 부작용도



▲ 베트남 수출 상승 (PG) [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북미 2차 정상회담의 무대가 베트남으로 확정되면서 공산당 일당 독재체제를 유지하면서도 빠른 속도로 경제성장을 이룬 베트남의 개혁 · 개방 모델인 ‘도이머이’가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다.

북미 양측이 모두 성공적인 모델로 보고 있고, 북한이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이룰 경우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기 때문이다. 도이머이는 바꾼다는 뜻을

지닌 베트남어 ‘도이’와 새롭다는 뜻인 ‘머이’의 합성어로 쇄신을 의미한다.

1986년 베트남 공산당 제6차 대회에서 채택한 슬로건으로 토지의 국가 소유와 공산당 일당 지배체제를 유지하면서 시장경제를 도입, 경제발전을 도모하기로 한 것이다.

응우옌 반 린 당시 공산당 서기장이 주도했다.

1975년 끝난 베트남전에 이어 1979년 발발한 중국과의 국경전쟁,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한계에 따른 식량 부족과 700%가 넘는 살인적인 인플레이션 상황이 초래되자 돌파구를 찾았다.

당시 상황은 ‘개혁이나, 죽음이나’라는 슬로건이 나올

정도로 절박했다.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였던 것이다.

1980년대 초 일부 지방의 농업 분야에서 중앙정부 몰래 시행한 도급제(할당량만 채우면 나머지는 농민이 갖는 제도)가 상당한 성과를 거둔 점은 도이머이 도입을 가능하게 한 긍정적 요인이었다.

쇄신의 길을 택한 베트남은 1987년 외국인 투자법을 제정해 적극적인 외자 유치에 나섰다.

1989년 캄보디아에서 군대를 완전히 철수해 중국에 이어 미국과의 관계를 정상화하고 국제사회의 제재에서 벗어난 것도 실질적인 도이머이를 위한 베트남의 결단이었다.

베트남은 1993년 토지법을

개정해 담보권, 사용권, 상속권을 인정했고, 1999년과 2000년에는 상법과 기업법을 잇달아 도입해 민간기업이 성장하는 길을 닦았다.

덕분에 연평균 6.7%의 고성장을 계속해 1980년대 100달러 안팎에 그쳤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2008년 1천 143달러로 증가해 중간소득 국가군에 진입했다.

베트남은 이후에도 고성장 기초를 유지, 지난해에는 1인당 GDP가 2천587달러로 뛰었다.

‘포스트 차이나’로 불리는 베트남의 작년 GDP 성장률은 10년 만에 최고치인 7.08%를 기록했고, 올해도 6.9~7.1%의 고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됐다.

외국인직접투자(FDI) 규모도 해마다 늘어 작년에는 사상 최고치인 180억 달러에 달했고, 올해 들어서도 지난 1월 말 현재 15억5천만 달러

를 유치해 작년 같은 기간보다 9.2% 증가했다.

그러나 고도성장의 부작용으로 나타난 빈부격차 확대, 공식사회의 부정부패 확산, 환경오염 등이 사회 문제가 되



▲ 리용호 북한 외무상(왼쪽), 베트남 총리 면담 [연합뉴스 자료 사진]

고 있다. 또 외국자본에 의존한 경제성장으로 자생력을 키우지 못했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지난해 말 베트남을 방문, 이런 도이머이의 성과와 노하우, 부작용 등을 현장에서 배웠다.

[연합뉴스]

HKI PT.HANJIN KONSTRUKSI INDONESIA

HUJ PT.HANJIN INDONESIA JAYA

고객의 미래를 함께 건설합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인도네시아 모든 지역에서 한진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플랜트 / 건설 / 토목

Jl. Modern Industry III/4 Kawasan Industry Modern Cikande RT 000, RW 000 Desa / Kel. Nambo Ilik Kec. Kibin Serang Banten

Tel : (0254) 402323 6 Fax : (0254) 402327

Email : pthanjin@hanjinind.co.id

www.hanjinpower.com